

Portfolio

최은숙

제작기간 : 2015~2017

차례

작가노트 -----3

작품이미지 -----4

작가이력-----15

작가노트

평등사회라고 불리는 요즘에도 위계는 어렵지 않게 발생한다. 과거의 신분사회가 경쟁사회로 간판이 바뀌었고 유능함을 무기로 승리의 전리품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계급은 결정된다. 축적된 전리품의 양에 비례하는 안정적인 외견, 즉 재력의 견고함과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는지와 같은 ‘외적 정보’만이 오롯이 타인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각 계층에 속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들의 실체는 보다 낮은 위치의 집단이 기대하는 환상을 통해 흐려진다. 맹신하기에 알맞은 계층의 신화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상승하기 위한 동력에 스위치만 켜면 된다.

집어들고 보고 달려드는 오징어 떼가 그러하듯이, 명성과 향유의 삶을 향한 맹목적인 질주의 역사는 본능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본능이라는 궁극적인 면죄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주가 낳은 획일화된 삶의 모습에 나는 불편함을 느낀다. 이 불편함의 이유를 내 유년의 삶, 그 내밀한 곳에 숨어있는 모습들을 통해 찾아내고 회화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유틈게 늘어뜨려진 고풍스러운 샹들리에, 꽃무늬 이중 커튼, 벽의 모서리마다 가로지르는 물딩장식 등은 나의 기억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발현된 희망하는 삶의 모습이자 동시에 취향으로 둔갑된 과시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화려한 장식들은 주로 나의 과거 혹은 잔존하는 기억에서 추출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철 지난 유행의 모습으로 캔버스에 등장한다. 그려진 이미지들은 얇은 채색과 흘러내릴 듯 한 붓 자국으로 다루어지는데 이 때 물감의 물성은 거의 사라지고 무기력한 느낌의 화면을 남긴다. 또한 뚜렷한 형태의 현재가 아닌 흐릿하고 뿌연 과거의 시간을 끊임없이 상징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입혀진 저채도의 색감은 그려진 이미지를 향한 건조한 나의 시선을 반영하는데, 이는 각 계층의 과시적인 삶에 대한 비판이자 물질을 갈구하는 집단적이고 획일화된 움직임에 대한 외롭고 우울한 시선이다.

작품이미지



커튼, 112.1×145.5cm, Acrylic on canvas, 2017



연회장, 130.5×97cm, Acrylic on canvas, 2017



Flowers, acrylic and oil on canvas, 2017



크리스마스 틴셀, acrylic and oil on canvas, 2017



Restaurant, 130.5×97cm, Acrylic on canvas, 2016



<Birthday hat>, Acrylic and oil on canvas, 27.5×35cm, 2016



<사탕목걸이>, Acrylic and oil on canvas, 27.5×35cm, 2016



<The window3>, Acrylic and Oil on canvas, 80×100cm, 2015



<놀이터>, Acrylic and Oil on canvas, 53×45.5cm, 2015



<라운드 테이블>, Acrylic and Oil on canvas, 53×45.5cm, 2015



<Ceiling decoration>, Oil on canvas, 145.5×112cm, 2015

작가 약력

최은숙

■ 학력

- 2011 M.F.A., 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 런던, 영국
- 2010 PgDip Fine Art,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런던, 영국
- 2002 서양화학과 학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

■ 개인전

- 2016 'for the Better', 살롱 아터테인, 서울
'집단을 위한 장치',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 2013 'The Space In Between', Gallery Mokspace, 런던

■ 주요 단체전

- 2017 '회화, 평면에 담긴 세상',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미술관, 고양
- 2016 '2016 아트경기 start-up',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성남
'심상의 풍경', 갤러리 경, 대구
- 2015 '나는 무명작가다', 아르코미술관, 서울
- 2014 'Passport to Pimlico', Churchill Gardens' sq, 런던
- 2013 'Slice', Hanmi gallery, 런던
'Bohunk Open Call', Bohunk institute, 노팅험, 영국
- 2012 'Three Cases and a Carry-on', Dianich Gallery, 버몬트, 미국
The Boat of 2012 : Annual Nomination Exhibition, 금일미술관, 베이징
- 2011 'Barcelona Showcase', Casa Batlló, 바르셀로나
'Nows: travers over time and space', Hanmi gallery, 런던
- 2010 'Gift 2010-Annual selection of graduates', Gallery 10Vyner street, 런던
그 외 다수

■ 레지던시 및 수상

- 2015~ 휴+네트워크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 2013 Short-list, 'Contemporary Visions IV', Beers.Lambert contemporary, 런던, 영국
- 2014 Short-list, '100 Painters of Tomorrow', Thames & Hudson 출판사, 런던, 영국